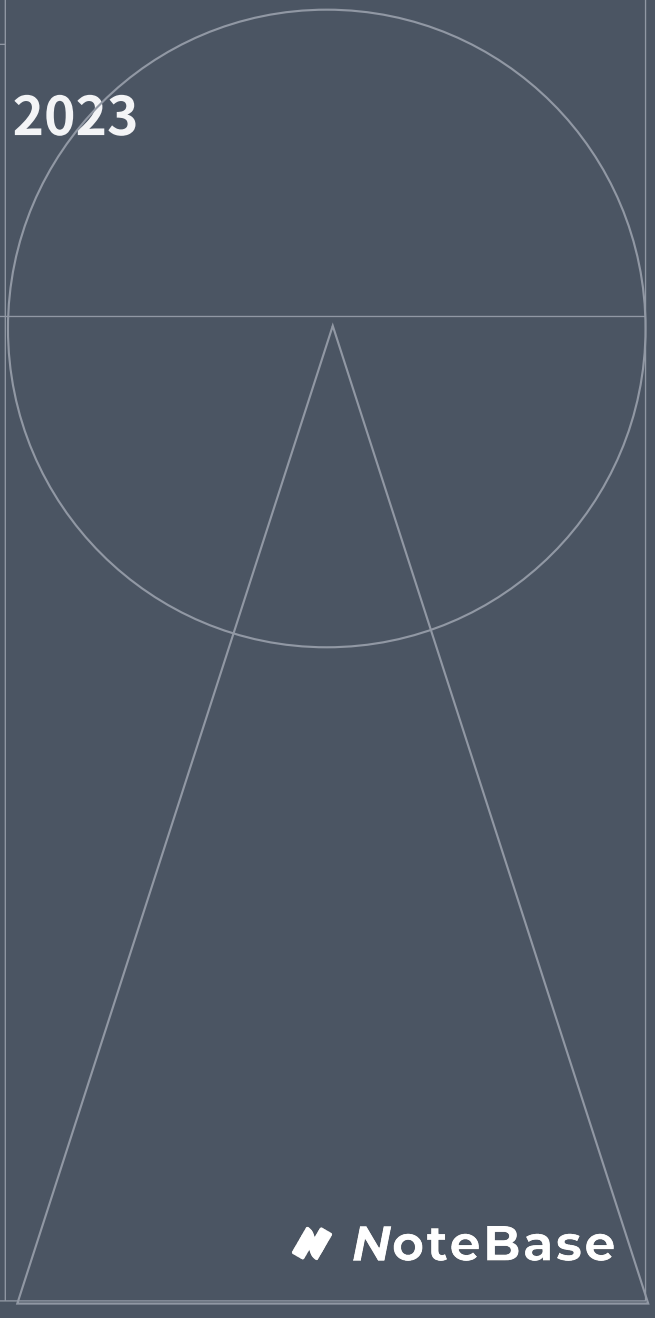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3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3

문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이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①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② 비음 앞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③ 동화 현상이다.
④ ‘읊는’에서도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국민[궁민]'과 '묻는[문는]'에서는 파열음 'ㄱ, ㄷ'이 뒤의 비음에 동화되어 각각 'ㅇ, ㄴ'으로 바뀐다. 이때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식이 바뀐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국민'은 [궁민], '묻는'은 [문는]으로 발음한다. 두 말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비음화는 받침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ㅁ'의 영향으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① X: 'ㄱ → ㅇ'은 모두 연구개음이고, 'ㄷ → ㄴ'은 모두 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조음 위치가 바뀐다'를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국민'에서는 받침 'ㄱ' 뒤에 비음 'ㅁ'이, '묻는'에서는 받침 'ㄷ' 뒤에 비음 'ㄴ'이 온다. 두 말 모두 **비음 앞의 받침**이 비음으로 바뀐다.

③ O: 동화는 한 음운이 이웃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두 말에서는 앞의 파열음이 뒤의 비음과 같은 조음 방식을 갖게 되므로 동화에 해당한다.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에 영향을 주는 **역행 동화**이다.

④ O: '읊는'은 [음는]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ㅶ'이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되는 과정을 거친 뒤, 뒤의 비음 'ㄴ'의 영향으로 **'ㅂ'이 'ㅁ'으로 비음화**한다. 따라서 보기의 두 말과 같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포기는 생각해 본바가 없다.

② 모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자.

③ 결국 돌아갈 곳은 고향뿐이다.

④ 원칙만큼은 양보하기가 어렵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본바가'의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일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 '가'는 '바'에 붙여 **'본 바가'**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나 일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여기서는 '생각해 본'의 수식을 받는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 '가'는 '바'에 붙이므로, '본바가'를 **'본 바가'**로 고쳐야 한다.

② O: '생각대로'의 '대로'는 명사 '생각' 뒤에서 그 생각에 따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생각대로'로 적는다.

③ O: '고향뿐이다'의 '뿐'은 명사 '고향' 뒤에서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뿐'과 서술격 조사 '이다'를 모두 앞말에 붙여 '고향뿐이다'로 적는다.

④ O: '원칙만큼은'의 '만큼'은 명사 '원칙' 뒤에 붙는 조사이고, '은'도 보조사이다. **조사가 연이어 올 때에도** 각각 앞말에 붙여 쓰므로 '원칙만큼은'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3. <보기>의 ㉠~㉣을 풀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대표적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된장과 김치를 ㉠ 폄하한 적이 있었다. 곰팡이균으로 만드는 된장은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 기피하고, 맵고 짠 김치도 건강에 해롭다고 했다. 이러한 발상이 나왔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과학의 선두 주자인 서구 지향적인 가치관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김치연구소까지 생기고, 마늘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면서 건강식품으로 등장하고, 된장(청국장) 또한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 각광을 받는다. 그리고 비빔밥은 다이어트 음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맛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굳이 신토불이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식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출해 ㉣ 천착할 필요가 있다.

① ㉠: 가치를 깎아내린
② ㉡: 꺼리거나 피하고
③ ㉢: 사회적으로 관심을
④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천착할'은 **깊이 파고들어 연구할**이라는 뜻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은 '시정할'에 해당하는 풀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폄하한'은 **가치를 깎아내린**이라는 뜻이다. 된장과 김치를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보아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문맥과 맞는다.

② O: ㉡의 '기피하고'는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고**라는 뜻이다. 된장이 암을 유발한다고 여겨 먹기를 꺼렸다는 문맥이므로 '꺼리거나 피하고'로 풀 수 있다.

③ O: ㉢의 '각광을 받는다'는 **사회적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다. 된장의 항암 효과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다는 문맥이므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로 풀 수 있다.

④ X: ㉣의 '천착할'은 어떤 내용이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할**이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식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은 '시정할'의 뜻이므로, '천착할'의 풀이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할'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4.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가능성은 늘 있다

② 만 65세 도래자는 →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③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소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④ 확인서 발급에 따른 편의성을 제고함 → 확인서 발급에 따른 편의성을 높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정'은 **미리 정해진**이라는 뜻이며, '소액'은 액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정의 급여'를 '소액의 급여'로 바꾸면 원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급여'로 다듬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상존하다'는 늘 존재한다는 뜻이다. '상존하고 있다'를 **'늘 있다'**로 바꾸면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② O: '도래하다'는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온다는 뜻이다. '만 65세 도래자'는 만 65세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으로 풀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X: '소정'은 **미리 정해진 바**를 뜻하고, '소액'은 **적은 액수**를 뜻한다. '소정의 급여'는 미리 정해진 급여라는 뜻이므로 급여 액수가 적다는 의미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미리 정해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로 다듬어야 원래 의미가 유지된다.

④ O: '제고하다'는 수준이나 정도를 높인다는 뜻이다. '편의성을 제고함'을 **'편의성을 높임'**으로 바꾸면 확인서 발급에 따른 편리함의 정도를 높인다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NoteBase

문 5. <보기 1>을 <보기 2>에 삽입하려고 할 때 문맥상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1>
왜냐하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객관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모든 다른 견해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2>
민족이 하나로 된다면 소위 “민족의 역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학을 포함한 학문의 세계에서 통합이란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 학문의 세계에서는 진실에 이르기 위한 수많은 대안이 제기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 따라서 그 다양한 대안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학문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학문의 세계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이 더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왜냐하면 … 때문이다'는 앞선 주장에 이유를 덧붙이는 표현이다. **학문에서 통합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 바로 뒤에, 여러 견해가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어져야 한다.

NoteBase

핵심 풀이

<보기 1>: '왜냐하면 … 때문이다'라는 표현은 **앞 문장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삽입 문장은 하나의 객관적 진실이 드러나 모든 견해를 하나로 모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학문에서 견해의 통합이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바로 앞에는 '역사학을 포함한 학문의 세계에서 통합이란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삽입 문장을 넣으면 **통합이 어려운 까닭**이 설명된다. 이어지는 문장은 수많은 대안의 경쟁을 통해 학문이 발전한다고 설명하므로, 여러 견해가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삽입 문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 앞 문장은 민족의 역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한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삽입 문장은 그 생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생각을 뒤집는 '그러나' 뒤의 주장과 연결해야 한다. ㉢에 넣으면 다양한 대안의 경쟁이 학문을 발전시킨다는 설명과, '따라서'로 시작하는 대안 통합에 대한 비판 사이가 끊긴다. ㉣에 넣으면 통합에 대한 비판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무리 사이에 이유가 뒤늦게 들어간다. 두 위치보다 ㉡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바로 연결**하는 구성이 자연스럽다.

NoteBase

문 6. <보기>의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보기>
댁들아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는가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후행(前行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 청장 아스슥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너무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무나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청장'은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을 뜻한다. 장수가 파는 게젓 자체를 가리키는 말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 '동난지이': 장수가 사라고 외치는 **게젓**이다. 마지막의 '게젓이라 하려무나'라는 말에서, 장수가 어렵게 설명한 물건이 게젓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물건': 손님이 장수에게 무엇을 파느냐고 물으며 쓴 말이다. 앞서 장수가 '동난지이 사오'라고 외쳤으므로, 여기서 물건은 **장수가 파는 게젓**을 가리킨다.

③ ㉢ '청장':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을 뜻한다. 게젓을 설명하는 대목에 등장하지만, 게젓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게젓을 담그는 간장을 가리킨다.

④ ㉣ '게젓': 장수가 길고 어렵게 설명한 대상을 손님이 쉬운 말로 부른 것이다. 따라서 앞의 **'동난지이', '물건'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은 모두 게젓을 가리키지만, ㉢은 간장을 가리키므로 지시 대상이 다르다.

NoteBase

문 7. 표준어끼리 묶었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엽다, 배냇저고리, 감감소식, 검은엿

② 눈짐작, 세로글씨, 푸줏간, 가물

③ 상관없다, 외눈퉁이, 덩쿨, 귀퉁배기

④ 겉창, 뚱딴지, 툇돌, 들랑날랑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눈퉁이'와 '덩쿨'은 비표준어이다. 각각 **'외눈박이' 또는 '애꾸눈이'**, **'덩굴' 또는 '넝쿨'**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네 낱말 모두 표준어이다. '가엽다'는 '가엾다'와, '배냇저고리'는 '깃저고리·배내옷'과 함께 인정된다. '감감소식'과 '감감무소식', '검은엿'과 '갱엿'도 각각 **복수 표준어**이다.

② O: '눈짐작'은 '눈대중·눈어림'과, '세로글씨'는 '내리글씨'와 함께 쓰는 표준어이다. '푸줏간'과 '고깃간', '가물'과 '가뭄'도 각각 복수 표준어이므로 네 낱말 모두 표준어이다.

③ X: '상관없다'는 '관계없다'와 함께 인정되는 표준어이며, '귀퉁배기'도 '귀퉁머리'와 함께 인정되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외눈퉁이'는 **'외눈박이' 또는 '애꾸눈이'**로, '덩쿨'은 **'덩굴' 또는 '넝쿨'**로 고쳐야 한다. 비표준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어끼리 묶은 것이 아니다.

④ O: '겉창'과 '덧창', '뚱딴지'와 '돼지감자', '툇돌'과 '댓돌', '들랑날랑'과 '들락날락'은 각각 복수 표준어이다. 따라서 '겉창·뚱딴지·툇돌·들랑날랑'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NoteBase

문 8. 외래어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 [t]는 '보닛(bonnet)'처럼 받침으로 적는다.

② 어말의 [☒]는 '브러쉬(brush)'처럼 '쉬'로 적는다.

③ 중모음 [ou]는 '보트(boat)'처럼 '오'로 적는다.

④ 어말 또는 자음 앞의 [f]는 '그래프(graph)'처럼 '으'를 붙여 적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어말의 [☒]는 '쉬'가 아니라 **'시'**로 적는다. 따라서 brush의 바른 표기는 **'브러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어 표기 세칙에서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어말의 무성 파열음 [t]는 **받침 'ㅅ'**으로 적는다. bonnet의 끝 [t]도 이 조건에 해당하므로 '트'를 덧붙이지 않고 '보닛'으로 적는다.

② X: 어말의 [☒]는 **'쉬'가 아니라 '시'**로 적는다. 따라서 '브러쉬'를 '브러시'로 고쳐야 한다. 자음 앞의 [☒]를 '슈'로 적는 규칙과도 구별해야 한다.

③ O: 영어의 중모음은 원칙적으로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 적지만, **[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boat는 '보우트'가 아니라 '보트'로 적는다.

④ O: 어말 또는 자음 앞의 마찰음 [f]에는 **'으'를 붙여 '프'**로 적는다. graph의 어말 [f]도 받침으로 적지 않고 '프'로 적으므로 '그래프'가 된다.

NoteBase

문 9. <보기>에 드러난 글쓴이의 삶에 대한 인식과 가장 가까운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보기>
그렇다. 그 흉터와,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 낸 떳떳하고 자랑스런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그 나이 든 선배님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 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②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③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④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삶의 상처를 힘겹게 이겨 낸 기록이자 삶을 단단하게 하는 가치로 받아들인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도 **시련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성장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의 글쓴이는 흉터를 '떳떳하고 자랑스런 내 삶의 한 기록', '매우 단단한 마디', '숨은 값'으로 여긴다. 따라서 비교의 기준은 삶의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며, 핵심은 시련을 견뎌 낸 경험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이다.

① '흔들림'은 삶의 시련과 동요를, '꽃이 핌'은 성장과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나타낸다. 모든 아름다운 꽃이 흔들리면서 피었다는 표현은 **시련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상처를 이겨 낸 흔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보기>의 인식과 맞닿는다.

② 연탄재는 뜨거운 열을 내어 다른 존재를 따뜻하게 한 흔적이다.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물음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한다. 중심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의 가치이며, 자신이 겪은 시련과 상처의 가치를 긍정하는 <보기>의 태도와는 초점이 다르다.

③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고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모습은 **부끄럼 없는 삶을 지향하는 자기 성찰**을 드러낸다. 여기서 괴로움은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는 태도와 연결되므로, 지나온 고통의 흔적을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보기>와 구별된다.

④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표현은 **슬픔의 가치를 긍정**하고 이를 상대에게 전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고통스러운 감정에서도 가치를 찾는다는 점은 <보기>와 통하지만, 제시된 구절에는 시련을 견뎌 낸 경험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네 구절 가운데 ①은 시련을 겪으며 아름다운 결실에 이른다는 인식을 드러내므로, 상처를 삶의 단단한 마디로 여기는 <보기>의 태도와 가장 가깝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작품에서 밑줄 친 시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들러리를 빙빙 돌며 간(肝)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① '간(肝)'은 화자가 지켜야 하는 지조와 생명을 가리킨다.
②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토끼전과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연결한다.
③ '독수리'와 '거북이'는 이 시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
④ '프로메테우스'는 끝없이 침전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고통이 큼을 암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독수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정신적 자아**이고, '거북이'는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현실적 유혹의 존재**이다. 화자가 독수리에게는 간을 뜯어 먹으라고 하면서 거북이의 유혹은 거부하므로, 두 존재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간을 지키자'라는 다짐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라는 선언은 화자가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 함을 보여 준다. 토끼에게 간은 목숨과 직결되는 장기이며, 이 시에서는 유혹에도 버려서는 안 되는 **지조와 양심, 생명**을 상징한다.

② O: '토끼'는 거북이의 꾐에 빠졌다가 간을 지켜 내는 '토끼전'을 떠올리게 하고, '코카서스 산중'은 불을 훔친 죄로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 서로 다른 이야기의 인물과 공간을 한 구절에 결합하여, **간을 매개로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③ X: '독수리'는 '내가 오래 기르던' 존재이며, 화자는 스스로 간을 뜯어 먹으라고 한다. 이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신을 살찌우려는 태도로, 독수리는 **자기 성찰과 정신적 단련을 이끄는 자아**를 뜻한다. 반면 '거북이'는 용궁으로 유혹하여 간을 잃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양심을 위협하는 현실적 유혹**을 뜻한다. 따라서 두 존재는 유사한 의미가 아니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④ O: '목에 맷돌을 달고'와 '끝없이 침전하는'은 프로메테우스가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짓눌리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특히 '끝없이'는 **고통의 지속성과 벗어날 수 없음**을 부각한다. 화자가 그를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데에는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이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고통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말이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① 옛부터 김치를 즐겨 먹었다.

② 궁시렁거리지 말고 빨리 해 버리자.

③ 찬물을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아라.

④ 상처가 곰겨서 병원에 가야겠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곰겨서'는 **'곰기어서'가 줄어든 말**이다. '곰기다'는 곪은 자리에 딴딴한 멍울이 생긴다는 뜻의 표준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옛부터'는 **'예부터'**로 고친다. '예'는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조사 '부터'가 붙을 수 있다. 반면 '옛'은 '옛 친구'처럼 뒤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이므로 여기에 조사 '부터'를 붙일 수 없다.

② X: '궁시렁거리지'는 **'구시렁거리지'**로 고친다.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한다는 뜻의 표준어는 '구시렁거리다'이다.

③ X: '들이키지'는 **'들이켜지'**로 고친다.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신다는 뜻에는 '들이켜다'를 쓴다. '들이키다'는 안쪽으로 가까이 옮긴다는 뜻이므로 찬물을 마시는 이 문맥에는 맞지 않는다.

④ O: '곰기다'는 곪은 자리에 딴딴한 멍울이 생긴다는 뜻이다. 어간 '곰기-'에 어미 '-어서'가 붙은 '곰기어서'는 **'곰겨서'로 줄여 쓸 수 있다**. 상처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드는 것을 뜻하는 '곪다'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것은?

<보기>
용언이 문장 속에 쓰일 때에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용언은 활용할 때에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부의 용언 가운데에는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것', '어미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것', '어간과 어미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것'이 있다.

① 잇다 → 이으니
② 묻다(問) → 물어서
③ 이르다(至) → 이르러
④ 낫다 → 나으니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르다(至) → 이르러'는 어간 '이르-'가 그대로 유지되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어간은 용언의 활용에서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어미는 그 뒤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려면 활용 과정에서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바뀌어야 한다.

① O: '잇다'의 어간 '잇-'에 어미 '-으니'가 붙으면 어간 끝의 **'ㅅ'이 탈락**하여 '이으니'가 된다. 어미 '-으니'는 유지되고 어간이 '잇-'에서 '이-'로 바뀌므로, 어간이 변하는 'ㅅ 불규칙 활용'이다.

② O: '묻다(問)'는 질문한다는 뜻이다. 어간 '묻-'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붙으면 어간 끝의 **'ㄷ'이 'ㄹ'로 바뀌어** '물어서'가 된다. 어미 '-어서'는 유지되고 어간이 '묻-'에서 '물-'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이다.

③ X: '이르다(至)'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는다는 뜻이다. '이르러'에서는 **어간 '이르-'가 유지**되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따라서 어간이 변하는 사례가 아니라 **어미가 변하는 '러 불규칙 활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르러'라는 활용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④ O: '낫다'의 어간 '낫-'에 어미 '-으니'가 붙으면 어간 끝의 **'ㅅ'이 탈락**하여 '나으니'가 된다. 어미 '-으니'는 유지되고 어간이 '낫-'에서 '나-'로 바뀌므로, 어간이 변하는 'ㅅ 불규칙 활용'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미를 따라 잡힌
어린 게 한 마리

큰 게들이 새끼줄에 묶여
거품을 뿜으며 헛발질할 때
게장수의 ㉠구럭을 빠져나와
옆으로 옆으로 ㉡아스팔트를 기어간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눈을 세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달려오는 군용 트럭에 깔려
길바닥에 터져 죽는다

㉣먼지 속에 썩어가는 어린 게의 시체
아무도 보지 않는 찬란한 빛

-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

① ㉠: 폭압으로 자유를 잃은 구속된 현실을 의미한다.
② ㉡: 자유를 위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공간을 나타낸다.
③ ㉢: 약자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낸다.
④ ㉣: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된 대상의 현실을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 '아스팔트'는 자유를 얻기 위해 도달할 미래의 공간이 아니라, 어린 게가 군용 트럭에 깔려 죽는 **폭력적이고 비정한 현실의 공간**이다. 어린 게가 그리워하는 자유의 공간은 '개펄'과 '바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구럭'은 잡힌 게를 가두어 두는 공간이다. 큰 게들이 '새끼줄에 묶여' 헛발질하는 모습과 함께, 외부의 힘에 억눌려 **자유를 빼앗긴 구속의 현실**을 드러낸다.

② X: 어린 게는 구럭을 빠져나와 ㉡ '아스팔트'를 기어가지만, 그곳에서 군용 트럭에 깔려 죽는다. 따라서 아스팔트는 자유로운 미래가 아니라 **구속에서 벗어나도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을 나타낸다. '개펄에서 숨바꼭질하던 시절'과 '바다의 자유'가 어린 게가 되찾고 싶어 하는 자유로운 삶에 해당한다.

③ O: 어린 게는 '바다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라며 ㉢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자유를 찾을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트럭에 깔려 죽는다. 이 흐름에서 사방을 살피는 행위는 **약자가 벗어날 길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

④ O: 어린 게의 시체는 ㉣ '먼지' 속에서 썩어 가며, 바로 다음 행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이어진다. 먼지에 덮여 방치된 모습은 어린 게의 죽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14.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홍색(紅色)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奇異)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차차 나와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위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白紙) 반 장(半張) 넓이만치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赤色)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향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左右)로 뛰놀며, 황홀(恍惚)히 번득여 양목(兩目)이 어지러우며, 붉은 기운이 명랑(明朗)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천중(天中)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향·독 같은 기운이 스러지고,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 혀처럼 드리워져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더라.
일색(日色)이 조요(照耀)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日光)이 청랑(淸朗)하니,
만고천하(萬古天下)에 그런 장관은 대두(對頭)할 데 없을 듯하더라.
짐작에 처음 백지(白紙) 반 장(半張)만치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 장차 나려고 어리어 그리 붉고, 그 회오리밤 같은 것은 진짓 일색을 뽑아 내니 어린 기운이 차차 가시며, 독 같고 항 같은 것은 일색이 몹시 고운 고(故)로, 보는 사람의 안력(眼力)이 황홀(恍惚)하여 도무지 헛기운인 듯싶더라.

①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한글로 쓰여 전해지고 있다.
② 해돋이의 장면을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③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한 갈래이다.
④ '회오리밤', '큰 쟁반', '수레바퀴'는 동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 작품은 허구의 사건을 꾸민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기행 수필**이다. 해돋이를 비유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작품이 허구적 갈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 글은 조선 후기 여성 작가 의유당의 '동명일기'로, **한글로 쓰인 기행 수필**이다. 여행에서 접한 자연 경관과 그에 대한 감상을 섬세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② O: 해의 붉은빛을 숯불이나 호박 구슬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와 같은 표현으로 빛과 움직임을 묘사한다. 이러한 **색채 표현과 역동적인 묘사**가 해돋이 장면을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③ X: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소설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여행에서 실제로 겪은 일과 견문, 감상을 기록한 **기행 수필로서 교술 갈래**에 속한다. 비유를 사용해 해돋이를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과 사건 자체를 허구로 구성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④ O: '회오리밤', '큰 쟁반', '수레바퀴'가 빗대는 대상은 모두 **떠오르는 해**이다. 처음 작게 보이던 해가 점차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익숙한 사물의 모양과 크기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오로지 베스 놈의 투지와 용맹을 길러서 금옥이네 누렁이를 꺾고 말겠다는 석구의 노력은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보다도 더 주의 깊게 베스 놈을 위해 주었고 그런 그의 정표 하나로 베스를 위해 암캐 한 마리를 더 얻어 들였을 만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 이청준, 「그 가을의 내력」 -

① 泥田鬪狗
② 吳越同舟
③ 臥薪嘗膽
④ 結草報恩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석구는 누렁이를 꺾겠다는 목표로 베스의 투지와 용맹을 기르고 정성껏 돌본다. 상대를 이기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이어 가는 모습은 **와신상담(臥薪嘗膽)**에 어울린다.

핵심 풀이

㉠의 단서는 '누렁이를 꺾고 말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행동이다. 석구가 베스의 투지와 용맹을 기르고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목표를 위한 준비이다. '臥薪嘗膽(와신상담)'은 섶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뜻을 이루기 위해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른다. 상대를 꺾으려고 노력을 이어 가는 석구의 태도에 어울린다.

泥田鬪狗(이전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체면을 돌보지 않고 비열하게 다투는 일을 비유한다. 개가 등장한다는 소재만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이 대목은 **싸움의 비열함보다 목표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둔다.

吳越同舟(오월동주):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놓이거나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상황을 이른다. 제시문에는 석구와 상대가 **같은 처지에서 협력하는 상황이 없다**.

結草報恩(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베스를 정성껏 돌보는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준비이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 서문은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세종대왕 당시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인데 ‘다름’에 대해 말하려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종대왕 당시에 우리말이 있었고, 말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닐 테니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이 있고 중국에도 말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달라서 문자로 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문자는 당연히 한자입니다. 한자는 중국말을 적기 위한 것이어서 우리말을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 때의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빼곡하게 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구려 사람이 중국어를 적어 놓았을 리는 없습니다. 당시에 문자가 없으니 한자를 빌려 자신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이니 한자의 뜻을 알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그 뜻을 헤아려 자신의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께서 우리글이 아닌 우리말을 만드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글자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흔한 일인데 유독 우리가 심합니다. 우리만 한글을 쓰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한자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곳에서 쓰이고 로마자는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입니다. 그러니 한글로 적힌 것은 곧 우리말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한글과 우리말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한성우, 『말의 주인이 되는 시간』 -

①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②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글이다.

③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

④ 한글이 오로지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자가 우리말 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한자로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 <보기>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한국어를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문자**이고, 한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보기>는 말과 글자를 구별하면서 한글과 우리말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오해를 지적한다.

② O: <보기>는 우리말이 세종대왕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이미 있던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말을 적기 위한 글자**인 한글이다.

③ X: <보기>는 한자가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한자로 우리말을 적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어는 오로지 한글로만 표기할 수 있다'는 '한국어는 **한글 이외의 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한글이 한국어 표기에만 쓰인다는 설명을 한국어는 한글로만 적을 수 있다는 뜻으로 뒤집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④ O: <보기>에서는 한자나 로마자가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것과 달리,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적는 데만 쓰인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한글로 적힌 것은 곧 우리말**이라고 여기면서 문자인 한글과 언어인 한국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NoteBase

문 17. <보기 1>의 (가)~(다)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문장을 <보기 2>에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생존을 위해 진화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에 이롭고 해로운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단맛을 내는 음식은 영양분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은 부패했거나 몸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딱히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보인다.
_____(가)_____
초콜릿 케이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처음 그에게 초콜릿 케이크의 냄새나 색은 전혀 '맛있음'과 연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맛을 본 사람은 케이크 자체만이 아니라 케이크의 냄새, 색, 촉감 등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초콜릿을 떠올릴 수 있는 신호만으로도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_____(나)_____
인공지능과 달리 동물은 생존과 번식에 대한 생물학적 조건을 기반으로 진화했다. 생물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구하고 환경에 반응하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번식을 한다. 이런 본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세부 목표가 있다. 유념할 점은 한 기능적 영역에서 좋은 것(목적 달성에 유용한 행동과 자극)이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여우가 있다. 왼편에는 어린 새끼들이 금세 강물에 빠질 듯 위험하게 놀고 있고 오른쪽에는 토끼 한 마리가 뛰고 있다. 새끼도 보호해야 하고 먹이도 구해야 하는 여우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_____(다)_____ 우리는 그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의사 결정을 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지에 대한 계산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행히도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갈등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우는 두 선택지의 중요도가 비슷하더라도 중간에 멍하니 서 있지 않고 재빨리 반응한다. 그래야 순간적인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기 2>
ㄱ. 이와 더불어 동물은 경험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ㄴ. 뇌는 여러 세부적인 동기와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합쳐서 선택지에 가치를 매긴다.
ㄷ. 이렇듯 우리는 타고난 기본 성향과 학습 능력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기호를 형성한다.

① (가): ㄱ, (나): ㄴ, (다): ㄷ
② (가): ㄱ, (나): ㄷ, (다): ㄴ
③ (가): ㄴ, (나): ㄱ, (다): ㄷ
④ (가): ㄷ, (나): ㄱ, (다): ㄴ

정답 2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나)의 '이렇듯'은 앞에서 설명한 **타고난 기본 성향과 경험에 따른 학습**을 함께 정리한다. (다) 뒤의 '그 과정'은 여러 동기와 반응을 종합해 **선택지에 가치를 매기는 과정**을 가리킨다.

빈칸별 해설

(가) ㄱ: 앞 문단은 배우지 않아도 나타나는 선호·혐오 반응을 설명하고, 뒤 문단은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 본 경험으로 그 냄새와 색까지 좋아하게 되는 사례를 제시한다. ㄱ의 **'이와 더불어'**는 타고난 반응에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을 덧붙이며, 뒤의 케이크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나) ㄷ: 이 자리 앞에는 본능적으로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향과, 케이크를 먹어 본 뒤 관련 자극을 선호하게 되는 학습 사례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ㄷ의 **'이렇듯'**은 이 두 내용을 받아 특정 대상에 대한 기호가 형성되는 방식을 정리한다. 이 문장을 (가)에 넣으면 아직 학습 사례가 나오지 않아 두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흐름이 약해진다.

(다) ㄴ: 앞에서는 새끼 보호와 먹이 확보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여우의 상황을 제시한다. ㄴ은 뇌가 여러 동기와 감정적·인지적 반응을 합쳐 선택지에 가치를 매긴다고 설명하여, 여우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답한다. 뒤 문장의 **'그 과정'**은 바로 이 가치 평가 과정을 받아 이를 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가)는 ㄱ, (나)는 ㄷ, (다)는 ㄴ이므로 ②의 대응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자신의 생각, 물건, 일 등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르는 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옥고(玉稿)

② 관견(管見)

③ 단견(短見)

④ 졸고(拙稿)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옥고(玉稿)'는 **남의 원고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자신의 원고를 낮추어 말할 때는 '졸고(拙稿)'를 쓴다.

공통 해설

자신의 생각이나 글 등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르는 말을 '겸양어'라고 한다. 이때 구별할 기준은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낮추는가**이다. 남과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표현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견(管見)'은 좁은 소견이나 자기의 소견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고, '단견(短見)'은 짧은 생각이나 의견을 뜻한다. 자신의 생각을 '관견'이나 '단견'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좁거나 부족하다는 뜻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이므로 겸손한 표현이 된다.

원고를 가리킬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졸고(拙稿)'는 자신의 원고를 변변하지 못한 것으로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반면 '옥고(玉稿)'는 남의 원고를 귀하게 여겨 높이는 말이므로,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낮추는 겸양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원고에는 '졸고', 남의 원고를 높일 때는 '옥고'**를 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여기에 다섯 명이 있다.

②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③ 선생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④ 열 사람이 할 일을 그 혼자 해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둘'은 다른 명사를 꾸미지 않고 **수량 자체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둘이다'에서는 수사 '둘'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있다.

공통 해설

수를 나타내는 말은 문장에서 쓰인 기능에 따라 품사를 구별한다. 수량 자체를 나타내며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수사이고, **뒤에 오는 체언의 수량을 꾸미면 수 관형사**이다. 숫자의 뜻을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 명'의 '다섯', '세 번'의 '세', '열 사람'의 '열'은 각각 뒤의 '명', '번', '사람'을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반면 '둘이다'의 '둘'은 뒤의 명사를 꾸미지 않고 더한 결과의 수량 자체를 나타낸다.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서술어를 이루므로, 밑줄 친 '둘'의 품사는 수사이다.

NoteBase

문 20. 복합어의 조어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개살구

② 돌미나리

③ 군소리

④ 짚신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짚신'은 어근 '짚'과 어근 '신'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어근에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지는 **파생어**와 조어법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복합어는 구성 성분의 성격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하는 부분이다.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이다.

① 개살구: 접두사 '개-'와 어근 '살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여기서 '개-'는 동물인 개를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② 돌미나리: 접두사 '돌-'과 어근 '미나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돌-'은 **'야생으로 자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며, 돌멩이를 뜻하는 명사 '돌'과 구별된다.

③ 군소리: 접두사 '군-'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군-'이 **'쓸데없는' 뜻을 더하므로**, 어근 두 개가 결합한 구조가 아니다.

④ 짚신: 명사인 '짚'과 '신'이 각각 어근으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짚'은 재료를, '신'은 발에 신는 물건을 뜻하여 '짚으로 만든 신'이라는 의미를 이룬다.

①~③은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④는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조어법이 다르다.

NoteBase